日本 訓点의 一源流

小林芳規*

요 약

본고에서는 韓日의 한문독법이 新羅에서 시작되어 발달되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新羅高僧 撰述書 중 現存하는 八世紀와 九世紀의 加点本인 三本, 즉 八世紀 中葉 以前에 角筆로 기입한 判比量論, 九世紀 初頭에 褐朱色으로 기입한 華嚴文義要決, 九世紀末에 褐朱色으로 기입한 弥勒経疏에 서, 이들 資料의 加点 內容을 新羅와의 關係를 고려하여 親疏에 따라 Ⅰ型 · Ⅱ型 · Ⅲ型의 型으로 분류한 후에, 八世紀와 九世紀 日本의 訓点本 중에서 각각의 型에 屬하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Ⅰ型은 判比量論 이외의 다른 것을 現段階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Ⅱ型은 奈良寫経에 奈良時代 八世紀에 角筆로 加点한 諸資料가 이에 속한다. Ⅲ型은 平安時代 九世紀에 白点 · 朱点 등으로 訓点을 기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日本式으로 發達한 資料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Ⅰ型은 新羅의 加点 그대로인 것이며, Ⅱ型은 符号가 新羅方式이지만 訓讀의 用語에는 日本語을 사용한 것이며, Ⅲ型은 訓点 全体가 日本式으로 된 것 중에서 符号의 一部에 新羅式을 남긴 것이다. 時期上으로 보면, Ⅰ型이 八世紀 中葉 以前, Ⅱ型이 八世紀부터 九世紀 初頭, Ⅲ型이 九世

* 德島文理大學 教授, 廣島大學 名譽教授

紀이다. 이는 세월의 推移와 함께 新羅 加点과의 親密度에 変化가 생기고, 当初에는 新羅의 加点을 완전히 그대로 受容한 것이 차츰 日本語로 바뀌어 訓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新羅의 方式은 符号의 一部에 남게 된, 新羅의 加点에 대한 受容의 段階的 変化를 反映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즉 (一) 新羅에서도 仮名가 먼저 사용되고, 오코토点이 나중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 日本의 奈良時代 八世紀의 角筆加点에는 오코토点 使用이 인정되지 않으며, 九世紀 初頭부터 오코토点 使用이 시작된다. 이러한 星点 本位의 오코토点이 華嚴文義要決의 星点 本位의 素朴한 形式과 거의 一致하며, 그 影響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二) 新羅의 오코토点도 星点을 기본으로 하여, 이것이 발전하여 複星点, 点과 線을 조합한 符号가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九世紀末까지는 갖춰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漢文讀法, 新羅加點, 判比量論, 華嚴文義要決, 弥勒経疏, 角筆加点, 新羅高僧撰述書

一. 日本 訓点의 起源說

日本 訓点의 起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說이 주장되고 있다. 첫 번째는 日本에서 創案하였다는 說이다. 淵源은 南都(奈良)古宗의 仏徒의 손에 의해서 平安朝初頭에 고안되었다는 說이다. 春日政治博士가 論文 「初期点法例」[2]에서 언급한 以來로 오늘날까지 주장되고 있다. 두 번째는 中國大陸의 樓蘭·敦煌文獻의 加点에 의한 것으로 특히 敦煌文獻의 句切点·破音字点의 影響이라고 하는 것이다. 石塚

2) 春日政治, 「初期点法例」(『國語國文』 第二十一卷九号, 昭和二十七年十月), (『古訓点의 硏究』 昭和三十一年 六月에 再錄.)

晴通氏가 「樓蘭·敦煌의 加点本」, 「敦煌의 加点本」, 「四聲点의 起源」[3] 等에서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韓半島의 新羅의 影響이라고 하는 것이다. 藤本幸夫氏가 十余年 前에 「八世紀의 新羅留學僧에 의해서 華嚴宗과 함께 漢文訓讀法을 가져왔을 可能性」[4]을 指摘하고, 近年의 新羅나 高麗의 経巻에서 角筆加点이 發見된 것에 의해서 이것을 그 증거[5]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日本에서 創案하였다고 하는 說은 春日政治博士가 그 推測의 前提로서 「최초의 点法에 대한 것은 이것을 現存의 古資料에 비추어 볼 때」라고 언급하였듯이, 東大寺·聖語藏에 保存된 古経巻을 중심으로 한 調査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古経巻에는 訓点이 白点이나 朱点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이 平安時代 九世紀 初頭라고 생각한 점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奈良時代 八世紀에 角筆로 訓点을 기입한 古経巻이 發見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日本의 訓点이 平安時代 九世紀 初頭에 만들어졌다는 說은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奈良時代 八世紀의 角筆訓点의 內容을 檢討한 結果는 起源이 南都古宗의 仏徒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說도 修正할 必要가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의 敦煌文獻의 加点의 影響이라는 說은 石塚晴通氏가 敦煌文獻에 朱点(若干의 墨点도)으로 기입된 破音字点을 예로 든 것이지만, 日本에서 白点, 朱点에 의한 訓点 記入이 시작된 平安時代 九世紀 初頭에 있어서 敦煌文獻의 加点의 影響을 받았다는 점을 具体的

3) 石塚晴通, 「樓蘭·敦煌의 加点本」(『墨美』 第二〇一号、昭和四十五年 六月). 同 「敦煌의 加点本」(『講座·敦煌第五巻 敦煌漢文文獻』 平成四年 三月). ISHIZUKA Harumichi "The Origins of the Ssu-shêng Marks" (ACTA ASIATICA 65, 1993.)

4) 藤本幸夫, 「李朝訓讀攷其一 —『牧牛子修心訣』을 中心으로—」 (『朝鮮學報』 第一四三輯, 平成四年 四月.)

5) 拙著 『角筆文獻研究導論 上巻 東아시아篇』 二〇二쪽.

으로 나타내는 資料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破音字点은 平安時代 初頭에 使用例가 보이지 않는다. 敦煌文獻에 보이는 것 같은 中國大陸의 加点이 日本의 訓点과 親密한 關係에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具体的으로는 平安 新興仏教의 天台宗의 円珍이나 円仁의 在唐中과 歸朝 後의 資料에 의해서 알 수 있으며, 十世紀 初의 日本書紀의 加点에서 指摘되듯이, 그 時期는 九世紀 後半 以後이다. 中國大陸의 加点은 日本의 訓点에 미친 有力한 影響 가운데 하나이지만, 現段階에서는 日本 訓点의 起源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되는 資料를 必要로 한다.

세 번째로 新羅의 影響이라고 하는 說은 우선 藤本幸夫氏가 返讀을 포함하는 訓讀의 順序를 나타내는 漢數字의 加点에 의한다고 설명한 점이다. 이 加点法이 韓半島의 十五世紀 後半의 口訣資料나 施符資料에 보이며, 동일한 方式의 加点이 日本의 平安時代 初頭의 訓点本에서도 보인다는 점에 의거하고 있다. 藤本氏가 예로 든 大東急記念文庫藏 華嚴刊定記 卷第五 외에도 新羅의 皇龍寺 스님인 表員이 撰集한 華嚴文義要決(佐藤達次郎氏 旧藏本)이나 東大寺図書館藏의 華嚴刊定記 卷第九,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卷第二의 朱点·白点에서 보이며,[6] 모두 日本에 있어서 毛筆에 의해서 訓点 記入이 시작된 時期의 것이라는 점이 注目된다.

최근에 韓半島의 十世紀·十一世紀의 古経卷에서 角筆의 加点이 發見되어 藤本氏가 취급한 十五世紀 後半의 口訣資料 等에서보다도 時代를 소급해서 日本의 訓点과의 關連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日本에 遺存하는 八世紀·九世紀의 加点資料에 의거해서 藤本氏가 언급한 점, 新羅에서 漢文訓讀法을 도입했을 可能性에 대해서 具体的으로 考察하여 보고 싶다.

---

6) 注(4) 文獻 一九三·三五五·三五六쪽.

二.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新羅高僧의 撰述書

印度·西域에서 伝來하여 中國大陸에 있어서 漢語로 翻譯된 많은 経論과 그것에 기초해서 編述된 注釋書 等이 東아시아 周辺 諸國의 言語文化에 크게 影響을 미치면서, 日本에서도 仏教가 伝來하여 弘通함에 따라서 여러 仏典이 將來되었다. 奈良時代(八世紀)에는 官營의 寫経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함께 많은 仏典이 書寫되어 讀誦되었다. 그러한 具体的인 経卷名을 正倉院文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新羅의 高僧이 撰述한 仏典으로 奈良時代(八世紀)에 日本에 將來된 것으로 正倉院文書에 의거해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撰者와 함께 정리해서 正倉院文書 所載의 仏典名과 그 年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大日本古文書』의 卷數와 頁數를 [ ] 안에 제시한다. (以下 論述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各 仏典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新羅元曉]

1 華嚴疏一部十卷 元曉師 天平十五年三月 [8의 169]

2 兩卷无量壽経宗旨一卷 元曉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0]

3 勝鬘経疏一部三卷 元曉師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9]

4 勝鬘経疏一部二卷 元曉師述 在慶俊師所 又處々甚多也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4]

5 般舟三昧経略疏一卷 元曉師述 右疏(ママ)審詳 師書類者 天平勝宝五年八月 [13의 22]

6 楞伽宗要論一卷 天平十六年十月 [8의 513]

7 楞伽経宗要二卷一卷疏 天平二十年六月 [3의 85]

8 入楞伽疏一部八卷 元曉師述 在元興寺理教師所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4]

9 楞伽経疏十三卷 元曉師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0]
10 維摩宗要一卷 白紙 天平三年八月 [7의 23]
11 維摩経(疏)四部 元曉疏三卷 天平勝宝五年九月 [3의 642]
12 (深密経疏)一部三卷 元曉師 右疏在元興寺法隆師所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0]
13 金光明経疏一部八卷 元曉師撰 依令旨所奉寫式部卿 天平十六年九月廿七日宣 天平十五年十一月 [8의 371]
14 最勝王経疏八卷 元曉師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3]
15 八卷金鼓経疏 元曉 天平勝宝四年十月 [13의 380]
16 不增不減経疏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5]
17 大惠度経宗要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18 (法華)要略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0]
19 (法花)略述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3의 379]
20 法花宗要一卷 天平十六年七月 [2의 356]
21 金剛三昧経論二卷中下 天平十五年三月 [8의 168]
22 金剛三昧経論一部三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6]
23 金剛三昧経論疏三卷 元曉師撰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3]
24 一卷(涅槃経)宗要 元曉師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79]
(涅槃)
25 卅卅経疏一部五卷 元曉師述 在藥師寺及右大臣殿書中 天平勝宝三年頃 [12의 15]
26 又(梵網経)疏二卷 元曉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0]
27 菩薩戒本持犯要記一部 元曉 天平勝宝五年五月 [12의 542]
28 瓔珞経疏二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29 瑜伽抄一部五卷 元曉師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9]
30 雜集論疏一部五卷 元曉師 神護景雲元年九月 [17의 107]
31 中辺論疏 天平勝宝元年十二月 [11의 98]
32 中辺分別論疏四卷 元曉師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5]
33 中辺分別論疏一部四卷 白紙表無軸 元曉師 神護景雲元年九月 [17의 107]

34 又(辨中辺論)疏四卷 元曉師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1]
35 攝大乘論抄四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36 世親攝論疏四卷 元曉師 白紙 已上 審詳師書 天平勝宝五年 [3의 654]
37 梁攝論疏抄一部四卷 元曉師述 審詳師書類 天平勝宝五年三月 [3의 618]
38 起信論別記一卷 元曉師者 天平十五年三月 [8의 169]
39 起信論記一卷 元曉師撰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5]
40 (起信論)一道章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41 (起信論)一道章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6]
42 (起信論)二鄣章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43 (起信論)二障章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6]
44 (起信論)二鄣章一卷 元曉師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1]
45 大乘二障義一卷 元曉師撰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7]
46 起信論(疏)四卷 二卷惠遠師 又 二卷元曉師 天平十五年三月 [8의 169]
47 廣百論撮要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8]
48 廣百論撮要一卷 元曉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3]
49 三論宗要一卷 天平勝宝二年七月 [11의 304]
50 宝性論宗要一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6]
51 掌珍論料簡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7]
52 掌珎論料簡一卷 元曉師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2]
53 大乘觀行門三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8]
54 大乘觀行門三卷 沙弥元曉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2]
55 判比量論一卷 以上大官寺本 天平十二年七月 [7의 488]
56 十門和諍論一部二卷 元曉師述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6]
57 六現觀義發菩提心義淨義合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8]
58 六現觀義發卄(菩)提義淨土義合一卷 元曉師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3]

[新羅義湘]
59 (華嚴)一乘法界図一卷 天平二十年五月 [1의 278]
60 (華嚴)一乘法界図一卷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7]

[新羅表員]

61 華嚴文義要決一卷 表員師集 天平勝宝三年五月 [11의 567]

[新羅憬興]

62 无垢称経疏一部六卷 璟興師述 在玄印師書中 掌興福寺善和師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4]

63 又(深密経疏)一部五卷 璟興師 右疏在現興寺法隆師所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0]

64 最勝王経疏五卷 惊興師 天平十二年七月 [7의 489]

65 最勝王経疏十卷 璟興師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3]

66 璟興師金光明経疏第一 天平十九年七月 [9의 426]

67 法花経疏十卷 璟興師撰 天平十九年六月 [9의 392]

(涅)
68 □槃経述賛七卷 天平勝宝二年六月 [11의 260]

69 涅槃経述賛十四卷 璟興師 神護景雲元年九月 [17의 81]

(涅槃)
70 卅卅経疏一部十四卷 璟興師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0]

(涅槃)
71 卅卅経疏一部十四卷 璟興師述 在大安寺玄智師幷在藥師寺弘耀師所及元興寺仁基師所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4]

72 彌勒経疏三卷 璟興師 天平十二年七月 [7의 490]

73 弥勒経述賛三卷 璟興師撰 天平十六年十二月 [8의 535]

74 大灌頂経疏一部二卷 神護景雲二年十一月 [17의 128]

75 顯揚論璟興述賛第四卷 天平十八年正月 [9의 23]

76 顯揚論述賛十六卷 璟興師撰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4]

77 成唯(識)論貶量三卷 天平勝宝三年三月 [11의 503]

78 (成)唯識(論)貶量一部廿卷 璟興師 「且來三卷」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0]

79 俱舍論抄一部四卷 璟興師 天平勝宝三年六月 [12의 10]

[新羅明晶]

80 (華嚴)海印三昧論一卷 以上道濟師本 天平十二年七月 [7의 491]

[新羅義寂]
81 (无量壽経)疏五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5]
82 大般若経剛要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83 大般若経剛要一卷 義寂師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1]
84 理趣(経)幽贊一卷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1]
85 (法華)料簡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5]
86 (法華)料簡一卷 義寂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0]
87 (涅槃経)剛目二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4]
88 涅槃経義記一部五卷 寂法師述 天平勝宝五年五月 [12의 541]
89 涅槃経義記四卷 寂法師 神護景雲元年九月 [17의 82]
90 (涅槃経)云何偈一卷 天平勝宝四年八月 [12의 361]
91 梵納(網)経疏二卷寂 天平十九年六月 [9의 383]
92 梵網経文記二卷 寂法師 神護景雲元年九月 [17의 87]
93 法花論述記一卷 天平宝字七年七月 [16의 402]
94 馬鳴生論疏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6]
95 十二章 寂法師 天平十二年七月 [7의 491]

[新羅玄一]
96 (无量壽経)記二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5]
97 法花経疏十卷 玄一師撰 天平十九年六月 [9의 392]
98 隨願往生経記一卷 天平二十年六月 [3의 85]
99 隨願往生経記一卷 玄一述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0]
100 (唯識)樞要私記二卷 天平勝宝四年十月 [12의 383]

[新羅太賢]
101 (梵網経)古迹一卷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0]
102 成業論記一卷 天平十六年十二月 [8의 539]

[新羅智仁]
103 又(四分律)抄十卷 智仁師述 天平二十年八月 [10의 327]
104 顯揚論疏十卷 智仁師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4]
105 (仏地論疏)又四卷 智仁師 天平勝宝三年九月 [12의 55]

[新羅行達]
106 瑜伽聊簡一卷 天平一六年七月 [2의 356]

当時에 日本에 전해온 新羅 撰述의 仏典은 여기에 제시한 것 외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상기의 百六点에 대해서 보면, 12 深密経疏와 같이 元興寺 法隆師所에 있다든지, 13 金光明経疏와 같이 令旨에 의해서 奉寫하였다든지, 80 華嚴海印三昧論과 같이 道濟師本 등의 注記에 의해서 所在나 書寫의 事情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審祥(詳)의 藏書라는 注記가 다음과 같이 있다.[7]

5 般舟三昧経略疏一卷 元曉師述 右疏審詳師書類者
36 世親攝論疏四卷 元曉師 白紙 已上 審詳師書
37 梁攝論疏抄一部四卷 元曉師述 審詳師書類

審祥은 大安寺僧으로 新羅에서 華嚴을 배우고, 新羅學生으로 불리어져 歸朝 後 天平十二年(七四〇)에 華嚴経을 東大寺의 前身인 金鍾寺에서 日本에서 처음으로 講說한[8] 스님이다.

이러한 審詳의 藏書가 「大安寺審詳師経錄」으로서 堀池春峰氏에 의해 收錄되어 一覽되고 있다.[9]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審祥師経을 근거

7) 「審詳師書」의 「書」라는 것은 62 「无垢称経疏一部六卷 璟興師述 在玄印師書中掌 興福寺善和師」의 注記에 의하면 「藏書」의 뜻이라고 생각된다.
8) 凝然, 「三國仏法伝通緣起」 卷中, 華嚴宗.
9) 堀池春峰, 「華嚴経講說에서 본 良弁과 審詳」 (『南都仏教史의 硏究 上 東大寺

로 하여, 凝然의 「華嚴宗経論疏目錄」, 「華嚴起信觀行法門(「三國仏法伝通緣起(所收)」, 「新羅學生大安寺審詳大德記」에 의거한 것이다. 計百七十一点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는 상기의 新羅高僧의 撰述書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다.

元曉 1 華嚴(経)疏 2 兩卷无量壽経宗旨 3,4 勝鬘経疏 5 般舟三昧経略疏 6 楞伽宗要論 9 楞伽経疏 15 金鼓経疏 16 不增不減経疏 18 法華要略 19 法華略述 23 金剛三昧経論疏 24 涅槃経宗要 28 瓔珞経疏 30 雜集論疏 32,33 中辺分別論疏 36 世親攝論疏 37 梁攝論疏抄 43,44 起信論二障章 46 起信論疏 47,48 廣百論撮要 53,54 大乘觀行門 55 判比量論

義湘 59,60 華嚴一乘法界図

憬興 72 彌勒経疏

義寂 81 无量壽経疏 82,83 大般若経剛要 85,86 法華料簡 87 涅槃経剛目 93 法花論述記 94 馬鳴生論疏

玄一 96 无量壽経記 100 唯識樞要私記

審祥의 藏書 중에는 支那學僧의 論著도 있기 때문에 藏書의 蒐集에는 몇 가지의 경로가 있었겠지만, 新羅高僧의 撰述書 중에는 審祥이 新羅에서 歸朝할 때에 가지고 온 것이 포함되어 있을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正倉院文書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 審祥의 華嚴経初講說의 天平十二年(七四〇) 이후인 점도 그것과 關連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三. 新羅 高僧 撰述書의 加点本

正倉院文書에 보이는 新羅 高僧의 撰述書는 書名에서 推測해 보면,

篇』昭和五十五年 九月.)

「華嚴経疏」, 「勝鬘経疏」와 같은 「疏」나 「料簡」과 같은 注釋書가 大多數이다. 이러한 注釋書는 그 本経을 讀解하는 데 있어서 撰述하고 活用되었겠지만, 그 注釋書 自体도 讀解의 對象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当時에 어떻게 讀解되었는지는 그 原本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全体像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同一書名의 八世紀·九世紀의 古寫本이 약간이기는 하지만 남아 있으며, 게다가 当時의 加点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 있다. 다음의 仏典들이다.

55 判比量論 元暁師撰
大谷大學図書館所藏 殘一卷 八世紀中葉以前 書寫
61 華嚴文義要決 表員師集
延暦寺藏 二卷 延暦十八年(七九九) 書寫
佐藤達次郎氏旧藏 一卷 九世紀初頭 書寫
72 弥勒経疏 憬興師撰
園城寺(三井寺)藏 三卷 寛平二年(八九〇) 円珍追記奥書

각각의 加点 內容은 別稿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10] 모두 新羅와의 관련을 생각할 수 있었다. 先說에서는 資料와 함께 個別的으로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는 新羅와의 관련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을 연결시켜 보려고 생각한다.

우선 각각의 加点 內容에 대해서 要点을 서술하고자 한다.

I 判比量論

大谷大學図書館藏本은 本文 一〇五行과 卷末의 廻向偈 二行과 奥

10) 注(4) 文獻, 一八七·二三五·二六〇쪽.

書(卷末筆寫記) 三行의 殘簡인데, 本文과 廻向偈에 걸쳐서 角筆에 의한 漢字와 가나(仮名) 및 諸符号가 기입되어 있다. 角筆의 漢字는 本文의 漢字音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한 注音의 漢字와 本文의 漢字句의 釋義를 나타내는 漢字의 字句이다.

角筆의 가나(仮名)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用法이 있다.

(1) 本文에는 對応하는 漢字가 존재하지 않지만, 訓讀하는 데 있어서 보충하여 읽는 文法機能의 가나(仮名)

(2) 本文의 漢字의 訓을 나타낸 가나(仮名)·同訓字, 訓의 終聲을 보충하여 읽는 音가나(仮名), 文法機能의 가나(仮名)

각각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良」



(日譯[11]) [지금 이것이 속에 있어서 즉시 所詮에 대해서 比量을 세우고 (第八)識이 있는 것을 證한다]

角筆의  는 経本文의 「中」 右傍 약간 아래쪽에 기입되어 있으며, 기입의 位置에서 보면 補讀의 文字라고 생각된다. 이 文字는 「良」의 草書体라고 보여진다.

日本에서 毛筆에 의한 訓点 記入이 시작된 平安時代 初頭에는 이 字体가 가나(仮名)의 ra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 카타가나(片仮名)의 「ラ」의 字源이 되었다.

여기서는 日本語의 「ラ」라 하여서는 意味가 통하지 않는다. 韓半島

11) 富貴原章信, 「判比量論의 研究」 (『判比量論』 昭和四十二年九月의 「本文과 和譯」에 의함.)

에서는 十二世紀 이후의 墨書口訣에 「良」을 字源으로 하는 音가나(仮名)의 「ゝ」[12](아)가 사용되며, 處所格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語의 格助詞 「に」에 해당한다. 判比量論의 本文의 「中」의 右下에 기입된 것은 「中에」에 해당하는 助詞를 보충하여 읽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角筆은 이것의 古形이며, 字源 「良」을 草書로서 사용한 段階를 나타내고, 高麗時代의 墨書口訣의 「ゝ」는 그것을 한층 草書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日本의 히라가나(平仮名)의 成立過程에 있어서 字源의 漢字를 처음에는 草書로서 사용한 것을 한층 略草化하여서 히라가나(平仮名)를 탄생하게 한 것과 통한다.

新羅의 歌謠를 전한다고 하는 鄕歌에도 「良」이 處所格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一等隱枝良出古(「月明師爲亡妹營齋歌」) 三國遺事[13]卷五 景德王十九 [七六〇])

角筆의  는 이러한 예들의 「良」와 같은 用法이라고 보이며, 本文 「於此中」의 「於」를 不讀하고, 그 뜻을 「中」에 첨가하여 읽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三國遺事(釋一然[一二〇六——二八九])가 著作된 十三世紀를 五百年이나 올라가는 八世紀 新羅의 使用實例로서 三國遺事 所收의 鄕歌 「良」의 증거도 되며, 그것이 漢文讀解의 場에서 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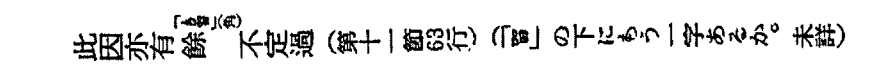
12) 南豊鉉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의 「文字体系」 ——쪽. 및 白斗鉉 『高麗時代口訣의 文字体系와 通時的変遷』, 「高麗時代 釋讀口訣자료와 麗末鮮初의 音讀口訣 자료를 대상으로 —」 第一回아시아諸民族의 文字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發表 論文, 一九九六年 九月, 나중에 口訣學會編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一九九七年 七月刊)에 所收.

13) 李朝 中宗 七年 刊行에 기초한 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刊 『三國遺事』에 의한다.

詞를 보충하여 읽은 例가 된다.

(2)에는 음가나(音仮名)로 나타낸 例와 同訓의 漢字(準仮名)로 나타낸 例가 있다. 모두 本文의 漢字의 바로 옆에 기입되어 있으며, (1)의 보충의 경우와 기입의 位置를 區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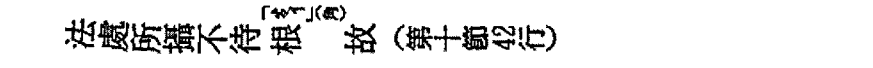
(2)「多留」



(日譯 [이 因에도 또한 餘의 不定의 過가 있다.])

本文의「餘」는「他(ほか)(의)」뜻이며, 그 訓과 關係가 있을 것 같다.

(3)「火」



(日譯 [法處所攝(色)은 根에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本文은 認識이 나타나는 據点으로서의 存在領域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간의 色은 "根"에 依存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뜻이다.「根」은 目·耳·鼻·舌·身 등의 認識器官이며, 感覺을 일으키는 機關이며 能力이기도 하여서, 草木의 根을 成長發展시키는 能力을 갖고 있으며, 줄기나 가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비유되고 있다.

南豊鉉博士는 湖巖美術館藏에서 天宝十四年(七五五)書寫의 大方廣仏華嚴経의 奥書(卷末筆寫記) 속에서「楮根中香水散爾成長令內弥」라고 사용된「根」에 대해서「訓讀字로 '불'을 表記한 것으로 十五世紀의 '불휘'는 古代에는 '불'이었다고 推定된다」[14](意譯)라고 언급하고 있다.

14) 南豊鉉『吏讀硏究』(二〇〇〇年 十月 刊) 二一五쪽.

「根」의 右傍의 角筆文字의 上字가 「火」의 草書인 것은 原本을 함께 調査한 金永旭氏의 敎示에 의한 것이며, 寫眞으로 확인한 것이다. 「火」의 草書라고 하면, 南豊鉉博士가 十三世紀의 『鄕藥救急方』의 「根」의 訓을 高麗語로 나타내는 데에 「火」(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 것과 통하며,[15]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新羅時代의 加点에 사용된 例가 된다. 「根」의 右傍의 角筆文字의 下字에 字形이 「是」의 草書의 省畵体와는 맞지 않고, 「利」의 旁의 省畵体와 맞는다. 이에 대한 解釋은 좀더 檢討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角筆의 「火」은 同訓의 漢字를 가지고 「根」의 訓을 나타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加点方式은 日本의 平安 初期의 訓点에 있어서 가나(仮名)에 準하는 用法으로서 많이 보이는 것이다.

判比量論의 角筆의 가나(仮名)에는 (1)과 같이 첨가하여 읽는 것이 三箇所에 四例, (2)와 같이 訓이 準가나(仮名)를 포함해서 八例가 인정되지만, 모두 日本語가 아니라 韓國語, 아마도 新羅語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判比量論에는 角筆의 漢字·가나(仮名) 외에도 諸種의 符号가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 節博士(梵唄譜)와 合符와 四聲点이다. 節博士와 四聲点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日本에서는 八世紀·九世紀에는 毛筆에 의한 白点·朱点으로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資料가 보이지 않는다. 十世紀가 되어서 平安新興의 天台宗 스님의 資料에서 나타나게 된다. 判比量論의 節博士에는 二種이 인정된다. 旋律의 움직임을 漢字의 周囲에 기입한 線으로 나타내는데, 數行에 걸린 線(A型으로 仮称)과 行間에 기입하는 譜(B型으로 仮称)의 二種이다. 이 중에서 數行에 걸친 線(A型)은 日本의 訓点에서는 使用例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韓國의 十一世紀 以前 刊行의 版本과 初雕高麗版, 더 나아가서는 十五世紀 後半 刊行의 妙法蓮華

15) 南豊鉉博士의 直話에 의함.

経에는 角筆로 이 A型의 線이 기입되어 있으며, 긴 것은 十數行에 걸쳐 있다.

行間에 譜를 기입하는 節博士(B型)도 韓國에서는 十一世紀의 初雕高麗版을 비롯하여 十三世紀의 再雕高麗版부터 十七世紀 刊行의 版本까지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 거슬러 올라가서 八世紀의 新羅에서도 행하여졌다는 것은 天宝十四年(七五五) 書寫의 新羅白紙墨書大方廣仏華嚴経(湖巖美術館藏)의 奥書(巻末筆寫記) 속에 「書寫를 할 때에 「梵唄」를 讀誦하였다」라고 쓰여 있는 것에서 推定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巻五의 景德王十九年(七六〇)四月의 記事에도 「聲梵」의 단어가 있다.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에 기입된 角筆의 節博士는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合符는 漢字 二字 또는 三字 以上이 하나의 概念 또는 하나의 意味上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符号이다. 判比量論에 기입된 角筆의 合符는 当該의 漢字 二字 또는 三字 以上의 全字의 字面上에 縦長線을 기입하고 있다. 日本의 訓点에서는 漢字와 漢字 사이에 짧은 縦線을 기입하는 方式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

判比量論의 角筆의 合符와 마찬가지로 字面上에 縦長線을 기입하는 것도 韓國의 加点에서 보이는 것이며, 十一世紀의 初雕高麗版이나 大方廣仏華嚴経 等의 角筆 加点에 使用되고 있다. 判比量論에 角筆로 기입된 이러한 符号가 韓國에서 使用된 符号와 일치한다는 것은 判比量論에 角筆로 기입된 仮名가 新羅語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은 新羅의 加点方式을 角筆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華嚴文義要決

延暦寺藏本과 佐藤達次郎氏 旧藏本으로 전해지는 것 중에 延暦寺

藏本은 延曆十八年(七九九)에 近事(こんじ)의 行福이 書寫하고, 三年後의 延曆二十一年에 智円이 黃褐色으로 加点하고 있는데, 句切点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제쳐두고, 여기서는 佐藤達次郎氏 旧藏本(以下 佐藤本이라고 한다)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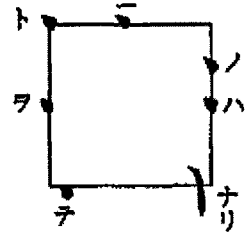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은 奥書(卷末筆寫記)가 없기 때문에 書寫의 時期는 確定할 수 없지만, 書寫의 樣態가 延曆寺藏本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八〇〇年 頃의 平安時代 初期를 내려가지 않는 시기의 書寫라고 알려져 있다.[16]

全卷에 걸쳐서 오코토点과 諸符号가 黃褐色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오코토点이나 諸符号도 日本의 毛筆에 의한 古訓点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에서 發見된 十一世紀 刊行의 大方廣仏華嚴経의 角筆의 点吐(오코토点)와 대부분의 点法이 맞으며, 諸符号도 一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17] 여기서는 다음에 要点만을 언급한다.

1. 오코토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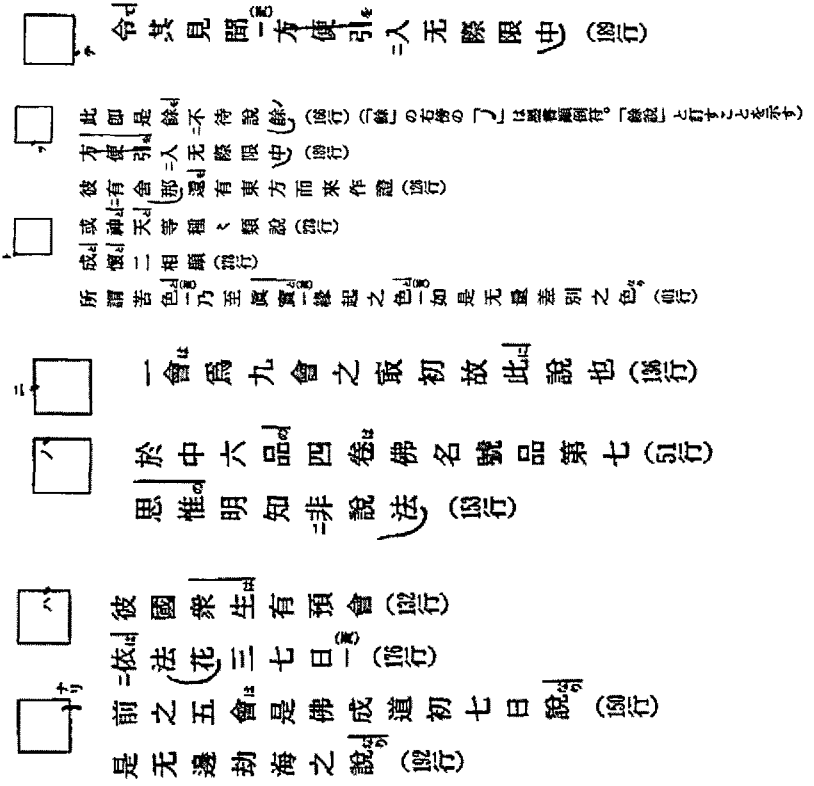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에 黃褐色으로 기입된 오코토点을 歸納하여 点図로서 나타내면, 다음의 第一図와 같다.

(第一圖)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오코토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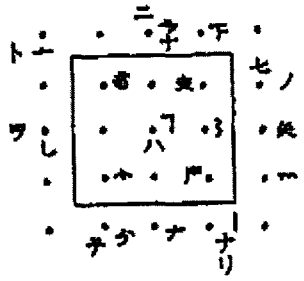
16) 山田孝雄, 「東大寺諷誦文幷華嚴文義要決解題」(昭和十四年 五月).
17) 注(4) 文獻 一八八쪽.

그 使用例를 제시한다. 文例 中의 平仮名는 原本에 기입된 오코토点을 解讀한 것이다.



星点을 左下에서 時計 방향인 오른쪽으로 「テ」, 「ヲ」, 「ト」, 「ニ」, 「ノ」, 「ハ」와 같이 사용되는 오코토点은 日本의 古訓点에서는 이 以外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韓國에서 發見된 角筆 加点 중에 十一世紀 刊行의 大方廣仏華嚴経에서 사용된 点吐(오코토点)의 星点과 거의 一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의 歸納図는 第二図와 같다.

(第二圖) 大方廣佛華嚴經(十一世紀 後半)의 角筆點의 星點圖



星点「·」을 기입한 位置나「ハ」의 位置,「ナリ」가 線点이라는 小異가 있지만,「ノ」의 位置가 右上隅보다 약간 아래라는 것이 共通되는 점은 日本의 仏書에서는 이 位置에 오코토点을 기입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 의해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오코토点의 星点이 韓國의 大方廣仏華嚴経의 角筆 点吐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2. 合符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에도 合符가 사용되고 있으며, 漢字 二字 또는 三字 以上의 熟合字의 字面上에 걸쳐서 縦長의 線을 黃褐色으로 기입하고 있다. 前揭의「方便引」의 例와 같다. 이것은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의 角筆의 合符와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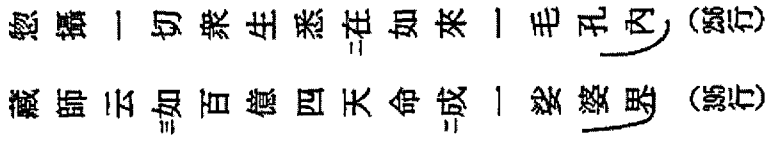
3. 返讀符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에는 二種의 返讀符가 사용되고 있다. 第一種은 漢數字의「二」,「三」,「四」 등을 漢字 本文의 옆에 기입한 것으로 返讀과 함께 訓讀하는 順序를 나타내고 있다.[18] 이 符号는 앞에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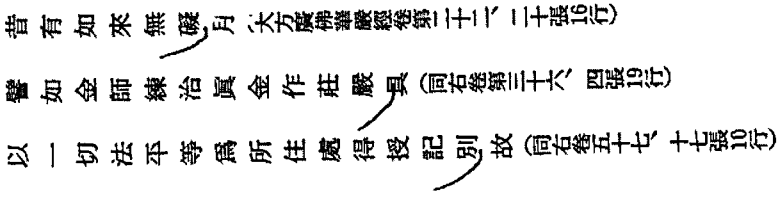
18) 注(4) 文獻 一九三쪽.

급하였듯이 藤本幸夫氏가 韓半島의 十五世紀 後半의 口訣資料 等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日本의 大東急記念文庫藏의 華嚴刊定記卷第五의 朱点에도 보인다는 점에서 日本의 漢文訓讀法이 新羅留學僧에 의해서 전래됐을 可能性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日本에서는 先述한 바와 같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이나 그 밖의 자료에서도 보이며, 모두 日本에서 毛筆에 의한 白点·朱点의 加点이 시작된 무렵의 資料에 주로 보이며, 後世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返讀符의 第二種은 返讀하는 最初의 漢字의 아래에서 붓을 일으켜 긴 弧를 위의 漢字의 옆에까지 그려서 返讀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다.



이 긴 弧의 返讀符는 日本의 毛筆에 의한 古訓点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韓國의 十一世紀의 角筆点에는 사용되고 있다.[19] 예를 들면, 誠庵古書博物館藏의 大方廣仏華嚴経의 角筆点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9) 注(4) 文獻 一四一쪽.

이 긴 弧의 返讀符가 韓國에서 九世紀 初頭에까지 소급해서 使用된 文獻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遺存資料의 制約에 의한 것으로서 日本에서는 弧의 返讀符가 本文의 漢字 옆에 짧은 弧를 기입만 하는 다른 形態인 것과 對比해 보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弧의 返讀符는 当時의 新羅에서 행해진 返讀符를 反映했을 可能性이 있다.

이것을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오코토点, 合符 또는 漢數字의 返讀符가 新羅 方式이라는 점과 일치시켜보면, 이러한 黃褐色의 加点은 대체로 親本에 기입되어 있었던 新羅의 오코토点, 合符 또는 返讀符를 移点했을 可能性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 日本에서도 獨自的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우연히 一致한 것이라고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日本의 이러한 符号가 新羅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日本에서는 毛筆에 의한 訓点의 加点이 막 시작된 時期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不自然스럽다.

이와 같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加点方式도 新羅와 親密한 關係에 있으며, 符号가 新羅의 方式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는 判比量論의 경우와 동하지만, 訓讀의 用語에 있어서는 判比量論이 新羅語를 그대로 加点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에서는 오코토点法은 新羅方式에 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言語는 先揭 例文에서 알 수 있듯이 日本語로 되어 있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加点 時期는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보다도 적어도 半世紀 以上은 내려온다. 이 半世紀 사이에 日本에서 受容의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変化가 생긴 것인지 어떤지는 檢討를 要하는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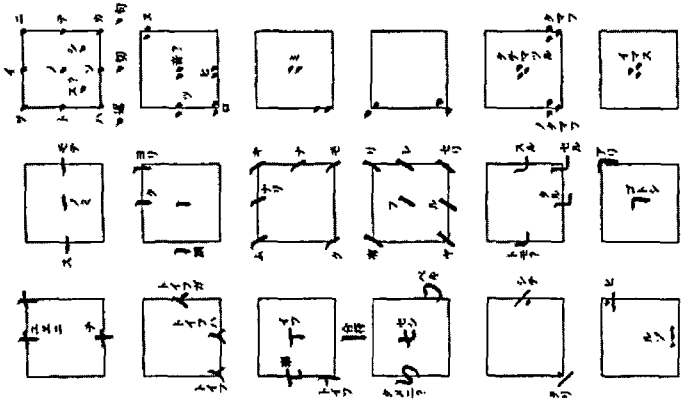
Ⅲ 弥勒経疏

園城寺(三井寺)藏本은 卷上·卷中·卷下의 三卷이 전하고 있으며, 內題에 「弥勒経疏」로, 卷下의 尾題에 「三弥勒経疏一卷 憬興撰」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이어서 本文과는 別筆로 「金忠大德送施圓珍 寬平二年閏九月十一日 追記之珍」의 円珍의 追記가 墨書되어 있다. 寬平二年(八九〇)은 円珍이 七十一歲로 입적한 寬平三年의 前年에 해당한다. 金忠大德에 대해서는 未詳이다. 國宝智証大師 關係 文書 典籍 중에 있는 將來経典 等 八種의 하나이다.

本文에는 褐朱色에 의한 仮名·字音注와 오코토点이 기입되어 있으며, 一部에 白点의 오코토点과 漢數字 「二…一」의 返讀符가 있다. 褐朱色의 가나(仮名)는 卷上에 若干과 卷下의 一箇所에만 기입되어 있으며, 草書体로 日本語의 訓이나 助詞·助動詞를 기입하고 있다. 字体에서 推定해 보면, 天台宗에 있어서 九世紀 末의 기입이라고 보아도 矛盾되지 않으며, 円珍 혹은 그 周辺의 天台宗 스님의 加点이라고 생각된다.

이 仮名와 同筆의 오코토点이 三卷에 加点되어 있는데, 卷上은 卷初에서 第六紙까지와 第九紙·第十紙, 卷中의 一部와 卷下의 一箇所에 기입되어 있는 程度이며, 全卷에 걸쳐있지 않다. 오코토点이 나타내는 言語도 当時의 日本語의 訓讀語이다.

따라서 褐朱点의 加点은 모두 日本語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코토点의 符号 중에 韓半島의 点吐(오코토点)와 關連이 있는 것이 보인다. 園城寺藏 弥勒経疏의 오코토点을 歸納하여 点図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星点「·」과 線「-」, 「|」과 鉤(갈고리 형태)와 「十·人」 등은 日本의 오코토점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과는 별도로 日本의 平安 初期 九世紀의 訓点本 一般에는 使用例가 보이지 않는 다음의 二種의 形式의 오코토점 符号가 포함되어 있다.

(a) 短線과 点을 조합한 符号의 「ノ·」 「丶」 「·|」 「↓」

(b) 複星点 「··」, 「:」의 다른 부호「·.」, 「∴」와 点 세개의 符号 「∴」, 「⁖」

日本에서는 (a)는 十世紀 以後의 天台宗 寺門派系의 資料에 痕迹을 남길 程度이며, (b)는 天台宗 山門派의 十世紀의 資料에 若干과 十一世紀의 宝幢院点과 그 關係 資料에 보이지만, 宝幢院点에 있어서 그 使用은 韓國의 点吐(오코토점)의 影響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20] 이에 대해서 韓國에서는 十世紀와 十一世紀의 刊本에 角筆로 기입한 点吐(오코토점)의 符号形態는 星点 「·」 다음으로 (b)의 複星点 「··」, 「:」, 「·.」, 「∴」이 多用되고 있으며, 「∴」, 「⁖」도 사용되고 있다. (a)의 短線과 点을 조합한 符号도 多用되고 있으며, 韓國 点吐

20) 注(4) 文獻 二〇八쪽.

(오코토点) 형태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 園城寺藏 弥勒経疏의 오코토点에서는 星点「·」 다음으로 線이나 鉤(갈고리 형태)가 多用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a)의 短線과 点을 조합한 符号는「ノ」「レ」「•l」「↓」의 각각이 各壺(점도)의 一箇所에 나타나는 데에 지나지 않고, 韓國과 같은 四隅四辺의 周辺에 배치되는 積極的인 사용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b)의 複星点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다른 系統의 오코토点의 影響에 의해서 도입되어 사용된 그 痕迹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他系統의 오코토点이라고 하는 것은 日本의 訓点本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韓國의 오코토点의 特徵이라고 한다면, 그 影響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韓國의 九世紀 末의 오코토点 加点資料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問題가 있지만, 이것은 韓國에 있어서 古典籍 遺存의 制約에 의한 것이므로 반대로 日本에 遺存하는 資料에서 推測할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平安 初期 九世紀 初頭부터 九世紀 末에 이르는 約 百年間은 日本에서는 白点·朱点 等의 加点이 시작되어, 가나(仮名)字体와 오코토点이 急速하게 發達하고 獨自色을 띠게 된다. 따라서 九世紀 末의 弥勒経疏의 訓点이 日本色을 짙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当然한 일이지만, 그 符号의 一部에 新羅의 符号의 痕迹을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四. 新羅의 影響으로 보는 三型과 그 資料群

新羅 高僧의 撰述書로 八世紀와 九世紀의 加点本 三種에서 新羅와의 關係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은 三種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

서 그 關係를 「型」으로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型…加点이 모두 新羅方式에 의한 것.

訓讀의 用語는 新羅語이며, 諸符号도 新羅의 符号를 사용하고 있다.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이 이에 속한다.

Ⅱ型…訓讀의 用語는 日本語인데, 諸符号는 新羅의 符号를 사용한 것으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이 이에 속한다.

Ⅲ型…訓讀의 用語나 諸符号가 日本方式이지만, 符号의 一部에 新羅方式이 남아 있는 것으로 園城寺藏 弥勒経疏가 이에 속한다.

이 三型은 同時期에 併行的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現存하는 三種의 加点本에 의하면, Ⅰ型은 八世紀 中葉 以前인 데 비해서 Ⅱ型은 半世紀 以上 내려온 九世紀 初頭이며, Ⅲ型은 約 百年을 더 내려온 九世紀 末이므로 세월의 推移에 따라 段階的으로 変化한 것을 反映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日本의 八世紀·九世紀의 다른 加点本을 예로 들어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一. Ⅰ型의 加点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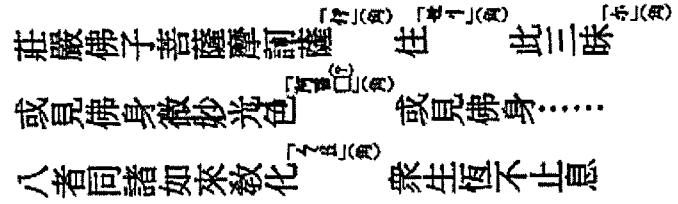
加点이 모두 新羅方式의 加点本은 本文이 本來 新羅의 寫経인 경우에 인정될 可能性이 높다. 現段階에서는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 以外에는 Ⅰ型의 加点本은 確認되지 않고 있다. 新羅寫経이 現存할 可能性도 있으며, 이에 대한 加点調査의 기회를 만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二. Ⅱ型의 加点本

諸符号가 新羅의 符号이지만, 訓讀의 用語가 日本語인 Ⅱ型의 加点本은 奈良時代의 角筆加点本이 인정된다. 다음의 諸資料이다.

1. 大方廣仏華嚴経卷第四十一(新譯) 一卷 東大寺図書館藏

東大寺의 本坊에 伝來한 奈良時代 寫経(神護景雲二年(七六八) 御願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으로 全卷에 걸쳐서 角筆에 의한 기입이 있다. 기입은 角筆에 의한 眞仮名(省畵体를 포함한다), 節博士(A型), 節博士(B型), 合符, 注示符가 인정 된다. 四聲点인 것 같은 圈点도 있다. 角筆의 眞仮名(省畵体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例와 같은 것으로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諸符号는 節博士(A型), 合符, 注示符와 같이 日本의 訓点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節博士(B型), 四聲点과 같이 平安 初期 九世紀의 白点·朱点에 사용하지 않고, 十世紀 以後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 節博士(A型), 節博士 (B型), 合符와 四聲点인 듯한 圈点은 I型의 判比量論에 사용된 符号와 동일하며, 新羅의 符号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II型의 加点은 다음의 諸資料에서도 인정된다.

2. 大方廣仏華嚴経卷第十二~卷第二十 大一卷 東大寺図書館藏

東大寺에 伝來된 奈良時代 寫経으로 角筆의 眞仮名, 節博士(B型), 合符, 注示符가 인정되며, 四聲点인 듯한 圈点, 漢字의 字音注 외에 科段符, 弧의 返讀符도 사용되고 있다. 角筆의 眞仮名는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한 것을 나타내며, 諸符号 중에 節博士 (B型), 合符와 四聲点인 듯한 圈点은 I型의 判比量論에 사용된 符号와 통한다.

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卷第二 二卷 東大寺図書館藏

奈良時代 神護景雲二年(七六八) 寫経으로 角筆의 眞仮名, 節博士(B型), 合符와 角筆의 字訓注가 인정된다. 角筆의 眞仮名는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한 것을 나타내며, 節博士(B型), 合符는 I型의 判比量論에 사용한 符号와 통한다.

4. 瑜伽師地論卷第七十~卷第七十二, 卷第七十四, 卷第七十七, 卷第八十四, 卷第九十八~卷第百 九卷 石山寺藏 奈良時代 天平十六年(七四四) 寫経으로 各卷에 角筆의 節博士(B型)가 인정되며, 더욱이 卷第七十과 卷第七十一에는 角筆의 合符가 I型의 判比量論과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다. 角筆의 眞仮名는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華嚴刊定記卷第五 一卷 大東急記念文庫藏 奈良時代 書寫(延暦二年[七八三] 以前 寫)로 全卷에 걸쳐서 角筆에 의한 기입이 인정된다. 기입은 角筆에 의한 漢字, 節博士(A型), 節博士(B型), 合符, 注示符가 인정되며, 四聲点인 듯한 圈点이 있다. 角筆의 漢字에는 「爲(す)」라는 訓을 나타낸 用法이 있으며,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華嚴刊定記卷第九 一卷 東大寺図書館藏

奈良時代 書寫로 全卷에 걸쳐서 角筆의 기입이 인정된다. 기입은 角筆에 의한 漢字, 節博士(B型), 注示符가 인정된다. 角筆의 漢字에는 「惑「人」(角)」과 같이 「ヒト」의 訓을 나타낸 用法이 있으며, 本文을 日本語로 訓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奈良時代 八世紀의 角筆 加点을 一覽하고, 判比量論 및 九世紀의 角筆加点과 비교한 것이 稿末의 図表이다. 奈良時代 八世紀

寫経에 기입된 角筆 加点의 時期가 같은 奈良時代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論述하였기 때문에[21] 여기서는 省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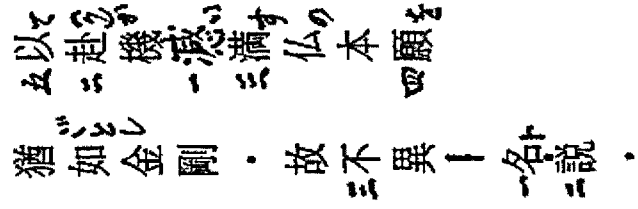
三. Ⅲ型의 加点本

Ⅲ型의 加点本은 日本에서 白点·朱点 等에 의한 訓点의 記入이 시작되어, 急速하게 發達되어서 獨自色을 띠는 平安 初期 九世紀의 資料에 보인다. 訓讀의 用語나 諸符号도 日本方式이지만, 符号의 一部에 新羅方式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우선 平安 初期 九世紀의 訓点資料 중에 新羅에서 華嚴을 배운 大安寺 審祥의 藏書이었던 経典과 同一 書名의 것을 들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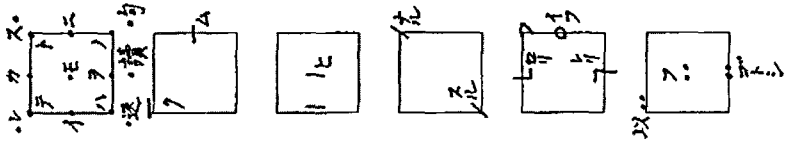
7. 華嚴経探玄記卷第九 一卷 正倉院聖語藏

本文은 奈良時代의 書寫로서 이것에 平安 初期의 古朱点(오코토点이 特殊点)과 白点(오코토点이 第四群点)이 기입되어 있다. 이 古朱点에 新羅의 符号와 통하는 二種의 符号를 사용하고 있다. 第一種은 漢數字의 返讀符로 訓讀의 順序를 나타내는 符号로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21) 注(4) 文獻 附章第二節 第四項

第二種은 오코토点에 複星点「‥」을 사용하고 있다. 오코토点의 歸納図를 아래에 제시한다.



古朱点 다음에 加点된 白点에서는 漢數字의 返讀符는 위로 올라가는 方式만으로 되어 있으며, 訓讀의 順序까지 나타내는 用法은 보이지 않는다. 複星点「‥」은「モチテ」와「ゴトシ」가 사용되고 있다.

華嚴経探玄記는 魏의 沙門法藏의 撰述인데, 審祥이 東大寺의 前身의 金鍾寺에서 처음으로 華嚴経의 講說을 행한 때의 本文은 六十卷本의 旧譯華嚴経이며, 그 注釋書로서 사용한 것이 이 探玄記이었다.[22] 審祥이 使用한 探玄記에 加点이 있었는지 어떤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內容의 加点이었는지는 이 当該本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未詳이지만, 聖語藏本의 古朱点에 新羅의 符号가 보이는 점은 무언가의 關係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8. 大乘廣百論釋論卷第十 一卷 大東急記念文庫藏

本文은 平安 初期 九世紀의 書寫로서 이것에 承和八年(八四一)에 白点과 朱点을 기입한 사실을 卷末에 白書로「承和八年七月八日」이라고 기록한 識語로 알 수 있다. 이 白点·朱点(仮名, 오코토点·第一群点)은 訓讀語나 諸符号도 모두 日本方式이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角筆에 의한 仮名, 返讀符, 合符, 節博士(B型)와 四聲点의 圈点이 全卷에 걸쳐서 기입되어 있다. 一部에 오코토点(第一群点)인 것같이 보이

22) 注(7) 文獻

는 것도 있지만, 確定할 수 없다. 角筆의 仮名와 返讀符와 縦短線의 合符는 白点·朱点과 동일한 字体, 동일한 符号이기 때문에 角筆이 承和八年 頃에 기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日本方式으로 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節博士(B 型)와 四聲点의 圈点과 合符 중에 「(」는 I型의 判比量論에 角筆로 기입되어 있으며, 또한 奈良寫経의 角筆加点에 사용된 符号와도 통한다. 이러한 것들은 新羅의 符号를 전하는 것이다.

大乘廣百論釋論은 護法釋으로 玄奘의 譯出로 성립된 것인데, 審祥의 藏書 중에 이 経典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新羅 符号와 통하는 角筆의 符号는 審祥의 讀解를 전할 可能性도 있다.

9. 說无垢称経 六帖 石山寺藏(一切経二十二函 四三—四八号)

本文는 平安 初期 九世紀 末의 書寫로 同期에 加点한 白点(仮名, 오코토点·第四群点)이 全帖에 걸쳐서 남아있다. 全卷의 調査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오코토点에 複星点 「:」(スル)가 사용되고 있다. 說无垢称経은 玄奘의 譯이지만, 審祥의 藏書 중에 이 経典名이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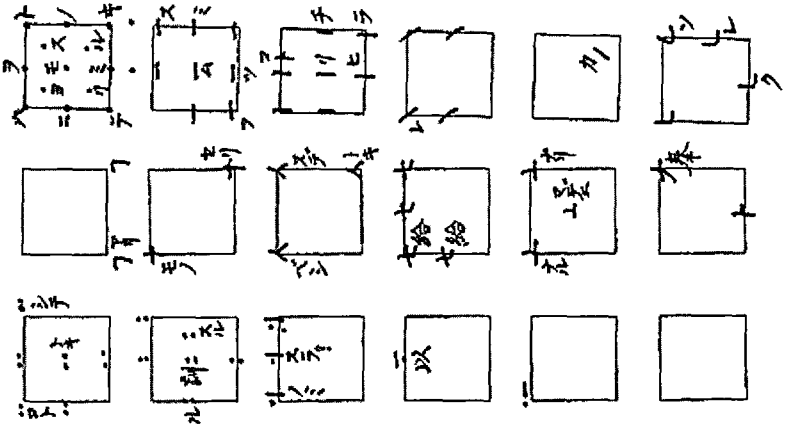
다음으로 平安 初期 九世紀의 訓点資料 중에 大安寺 審祥의 藏書에는 보이지 않는 経典 중에도 新羅의 符号와 통하는 符号를 사용한 것이 있다. 다음의 資料이다.

10. 守護國界主陀羅尼経卷第八 一卷 石山寺藏(校倉聖教十六函 一의八号)

本文은 平安 初期 九世紀의 書寫로 同期에 기입된 白点·朱点(仮名, 오코토点·第五群点)과 褐朱点(仮名, 오코토点·第三群点)이 남아있다. 모두 日本語의 訓讀을 加点한 것인데, 褐朱点의 오코토点의 符号 중에

(a) 短線과 点을 組合한 符号의 「ㄱ」 「ㅣ」 「ㅣ」

(b) 複星点 「‥」, 「:」가 포함되어 있다. 오코토点図를 歸納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符号는 日本의 平安 初期 九世紀의 訓点本 一般에는 使用例가 보이지 않으며, 九世紀 末의 園城寺藏 弥勒経疏의 오코토点에 보인다는 점은 先述하였지만, 그것보다도 時代上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白点·朱点에도 複星点 「‥」, 「:」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코토点의 符号의 使用과 함께 仮名字体 중에 「ㅐ」의 使用도 注目된다. 「ㅐ」는 「斗」의 草書를 더욱 더 흘려서 略化한 字体로 高麗時代의 口訣[23]에 「ㅐ」(音두)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大谷大學図書館藏 判比量論에 草書의 가 사용되고 있다.[24] 그런데 日本 訓点의 가나(仮名)로서는 다른 곳에서의 使用例는 보이지 않는다.[25] 新羅의 가나(仮名) 使用과의 關連을 생각할 수 있다.

---

23) 注(11) 文獻 중에 白斗鉉氏 論文.

24) 注(4) 文獻 二八九쪽.

25) 大矢透『仮名遣及仮名字体沿革史料』, 春日政治『仮名發達史序說』, 同『片仮

五. 맺음말

新羅 高僧 撰述書로 現存하는 八世紀와 九世紀의 加点本의 三本, 즉 八世紀 中葉 以前에 角筆로 기입한 判比量論, 九世紀 初頭에 褐朱色으로 기입한 華嚴文義要決, 九世紀 末에 褐朱色으로 기입한 弥勒経疏에 대해서 加点 內容을 新羅와의 關係의 親疏로 Ⅰ型·Ⅱ型·Ⅲ型의 類型으로 분류한 후에 八世紀와 九世紀 日本의 訓点本 중에서 각각의 型에 屬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 結果 Ⅰ型의 加点本은 判比量論 외에 다른 것은 現段階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Ⅱ型은 奈良寫経 중에 奈良時代 八世紀에 角筆로 加点한 諸資料가 이에 속하며, Ⅲ型은 平安時代 九世紀에 白点·朱点 등으로 訓点을 기입한 자료에서 시작되며, 日本式으로 發達한 資料 중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Ⅰ型은 新羅의 加点 그대로인 것이며, Ⅱ型은 符号가 新羅方式이지만, 訓讀의 用語에는 日本語을 사용한 것이며, Ⅲ型은 訓点 全体가 日本式으로 된 것 중에서 符号의 一部에 新羅式을 남긴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時期上으로 보면, Ⅰ型이 八世紀 中葉 以前인 것에 비해서 Ⅱ型이 八世紀부터 九世紀 初頭이며, Ⅲ型이 九世紀이다. 이것은 세월의 推移와 함께 新羅加点과의 親密度에 変化가 생기고, 当初에는 新羅의 加点을 완전히 그대로 受容한 것이 차츰 日本語로 바뀌어져서 訓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新羅의 方式은 符号의 一部에 남게 되었다고 하는 新羅의 加点에 대한 受容의 段階的 変化를 反映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新羅와의 關連性을 갖는 日本의 加点本을 좀 더 늘릴 必要가 있다. 奈良時代 八世紀의 角筆 加点本은

名의 研究」, 築島裕「平安時代訓点本論考 仮名字体 오코토点図」에는 이 字体가 보이지 않는다.

今後의 調査에 의해서 增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平安 初期의 古点本은 角筆加点의 有無를 포함해서 新羅와의 關係라는 視点에서 再調査를 할 必要가 있다. Ⅰ型에서 Ⅱ型으로 더 나아가서는 Ⅲ型으로라는 変化가 上述한 바와 같이 段階的으로 행하여졌다고 본다면, 日本資料에 의거해서 日本에 影響을 미친 新羅 加点이 八世紀에서 九世紀의 変化를 推測하는 것도 興味 있는 課題일 것이다. 예를 들면,

(一) 新羅에서도 가나(仮名)가 먼저 사용되고, 오코토点이 나중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 日本의 奈良時代 八世紀의 角筆加点에는 오코토点 使用이 인정되지 않으며, 九世紀 初頭부터 오코토点 使用이 시작된다. 이러한 星点 本位의 오코토点이 華嚴文義要決의 星点 本位의 素朴한 形式과 거의 一致하며, 그 影響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二) 新羅의 오코토点도 星点을 기본으로 하여, 이어서 複星点, 点과 線을 조합한 符号가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九世紀 末까지는 갖춰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推測에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資料에 의한 증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번역: 尹幸舜)

〔日本國 廣島市 中區 羽衣町 1-26 廣島萬象園 903〕
접수일자: 2005. 09. 01.
게재결정: 2006. 07. 31.

	時代	資料（所藏・書寫時代）	角筆加點（文字と符號）											
			新羅式											日本式
			節博士B	節博士A	合符	四聲點	返讀符	句切符	注示符	漢字注	眞假名	省畫假名	ヲコト點	合符
角筆加點本	新羅經	判比量論（大谷大學藏・八世紀前半期寫）								○	○	○	×	×
	八世紀（奈良時代）加點本	華嚴判定記 卷第五（大東急記念文庫藏・延曆二年以前寫）								○（朱）			×	×
		卷第九（東大寺圖書館藏・奈良時代寫）								○（墨）			×	×
		卷第十三（東大寺圖書館藏・天平寶字二年寶龜七年頃寫）								○			×	×
		卷第十三（別本）（東大寺圖書館藏・天平勝寶年寫）											×	×
		卷第八本（國藏〈文化廳保管〉・奈良時代寫）								○			×	×
		華嚴經 卷第四十一（東大寺圖書館藏・傳神護景雲二年寫）									○	○	×	×
		華嚴經 卷第十二～卷第二十（東大寺圖書館藏・奈良時代寫）								○	○		×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卷第二（東大寺圖書館藏 神護景雲二年寫）								○（朱）	○		×	×
		瑜伽師地論卷第七十～卷第百（石山寺藏・天平十六年寫）								○	○		×	×
		瑜伽師地論卷第五十七（石山寺藏・奈良時代寫）								○（朱）		○	×	×
		大乘掌珍論卷上（國藏〈文化廳保管〉・寶龜三年寫）								○			×	×
	九世紀（平安初期）加點本	大唐西域記卷第一（興聖寺藏・延曆四年寫）			×					○（朱）	○		○（墨）	
		大乘廣百論釋論卷第十（大東急記念文庫藏 平安初期寫，承和八年頃）			×						○	○	○（墨）	
		華嚴判定記卷第二、卷第九（東大寺圖書館藏 平安初期寫）	×	×	×	×	×		×	×	×	×	×	×

日本の訓点の一源流

小林芳規

本稿は韓日の漢文読法の発達は新羅から始まったという点を検討した研究である。新羅高僧撰述書で現存する八世紀と九世紀の加点本の三本、即ち八世紀中葉以前に角筆で書入れた判比量論、九世紀初頭に褐朱色で書入れた華厳文義要決、九世紀末に褐朱色で書入れた弥勒経疏について、加点内容を新羅との関係の親疏から、Ⅰ型・Ⅱ型・Ⅲ型の型として把え直した上で、八世紀と九世紀の日本の訓点本の中から、それぞれの型に属するものを求めた。その結果、Ⅰ型の加点本は判比量論より他には現段階では見出されていないが、Ⅱ型は奈良写経に奈良時代八世紀に角筆で加点した諸資料がこれに属し、Ⅲ型は平安時代九世紀に白点・朱点等で訓点を施すことが始まり、日本式に発達した資料の中に見出されることが分った。

Ⅰ型は新羅の加点そのままのものであり、Ⅱ型は符号が新羅方式であるが、訓読の用語には日本語を用いたものであり、Ⅲ型は訓点全体が日本式になった中で符号の一部に新羅式を残したと見られるものである。時期の上から見ると、Ⅰ型が八世紀中葉以前であるのに対して、Ⅱ型が八世紀から九世紀初頭であり、Ⅲ型が九世紀である。これは時の推移と共に新羅加点との親密度に変化が生じ、当初は新羅の加点をそのまま丸ごと受容したものが、次第に日本語に置換えて訓読するようになり、遂には新羅の方式は符号の一部に残るに止まるようになる、という新羅の加点の受容の段階的変化を反映した姿と考えられそうである。即ち、（一）新羅でも、仮名が先でヲコト点は後れて用いられるように

なったか。日本の奈良時代八世紀の角筆加点にはヲコト点使用が認められず、九世紀初頭からヲコト点使用が始まる。その星点本位のヲコト点が、華厳文義要決の星点本位の素朴な形式に殆ど一致し、その影響と見られることから考えられる。（二）新羅のヲコト点も、星点を基とし、次いで複星点、点と線を組合せた符号が加わったが、これらは九世紀末までには整っていたと見られる。

*キーワード: 漢文読法、新羅加点、判比量論、華厳文義要決、弥勒経疏、角筆加点、新羅高僧撰述書